



미 증시, 국채 금리 추가 하락에 힘입어 상승

미국 증시 리뷰

10 일(화) 미국 증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 확산되며 국채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연준위원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및 국채금리 추가 하락에 힘입어 상승(다우 +0.4%, S&P500 +0.52%, 나스닥 +0.58%)

비둘기파인 래피얼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이고, 그동안 단행한 금리 인상 효과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고 언급. 매파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데 있어 장기 수익률의 상승이 우리에게 일부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며 국채 수익률 상승이 긴축효과가 있다는 데 동의. 동시에 금리 상승세가 연준의 추가 인상에 대한 시장의 예상을 반영한 것이라면 실제로 시장의 기대를 따라야 할 수 있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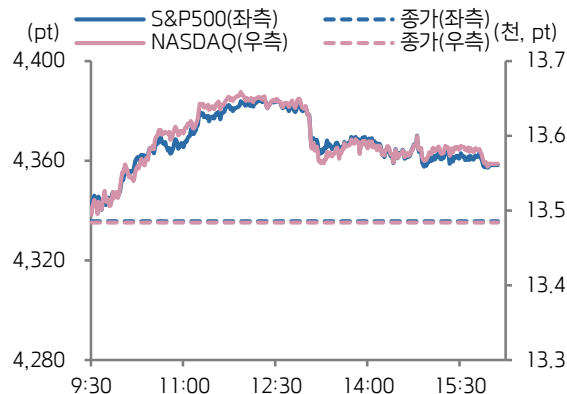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을 '순전한 악행(act of sheer evil)'이라고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미국 역시 추가 군사 자산을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인접한 남부 지역에 군대를 집결시켰고, 미 국방부는 헤즈볼라 등 다른 무장정파들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지역에 항공모함을 추가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IMF 는 10 월 세계 경제 성장률은 올해 3.0%(7 월 3.0%), 내년 2.9%(7 월 3.0%)로 하향한 반면, 소비자물가전망치는 내년 5.8%(7 월 5.2%) 로 상향 조정하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시사. 미국은 올해 1.8% -> 2.1%, 내년 1% -> 1.5%으로 상향 조정. 반면 중국의 성장 전망은 올해 5.2% -> 5.0%, 내년 4.5% -> 4.2% 로 하향하며 경기침체 심화를 전망.

일본은 엔저에 기인한 수출 확대와 팬데믹 종료로 인한 관광객 증가를 근거로 올해 1.4% -> 2.0%로 상향, 한국은 12개월 연속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된 영향으로 7월과 동일한 1.4%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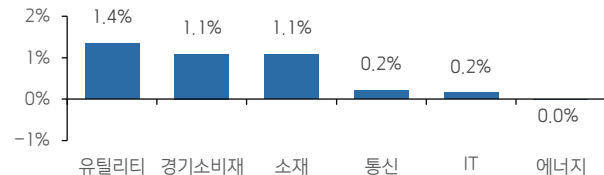
미국 9 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는 90.8(예상 91.4, 전월 91.3) 로 예상치 하회, 8 월 도매재고는 MOM -0.1%(예상 -0.1%, 전월 -0.3%)로 전월대비 개선.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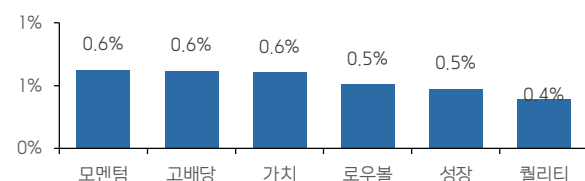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02.58	-0.26%	USD/KRW	1,349.73	-0.17%
코스피 200	319.11	+0.05%	달러 지수	105.77	-0.3%
코스닥	795.00	-2.62%	EUR/USD	1.06	+0.02%
코스닥 150	1,245.24	-2.82%	USD/CNH	7.29	-0.03%
S&P500	4,358.24	+0.52%	USD/JPY	148.64	-0.05%
NASDAQ	13,562.84	+0.58%	채권시장		
다우	33,739.30	+0.4%	국고채 3년	4.000	-1bp
VIX	17.03	-3.79%	국고채 10년	4.225	-1.9bp
러셀 2000	1,775.95	+1.14%	미국 국채 2년	4.970	-11.2bp
필라. 반도체	3,512.07	+1.29%	미국 국채 10년	4.653	-14.8bp
다우 운송	15,074.47	+0.89%	미국 국채 30년	4.833	-13.5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05.23	+2.25%	WTI	85.93	-0.05%
MSCI 전세계 지수	663.34	+1.02%	브렌트유	87.65	-0.57%
MSCI DM 지수	2,887.89	+1.02%	금	1873.8	-0.08%
MSCI EM 지수	944.55	+0.98%	은	22	+0.21%
MSCI 한국 ETF	58.55	+0.14%	구리	362.9	-0.14%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1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4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65%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40.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시장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양호한 매크로 여건으로 인한 국내 증시 반등 가능성
2.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관련 뉴스플로우
3. 삼성전장의 잠정실적 발표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지난주 17pt 대로 급락함에 따라 극단의 공포영역(Extreme Fear)에 진입하기도 했던 CNN의 Fear & Greed index는 10월 기준 32pt 대로 올라오면서 투자심리가 점차 해빙되고 있는 모습. 코스피도 2,400pt 선을 중심으로 하방 경직성을 유지시키고 있긴 하지만, 시장 분위기는 상승 추세 복귀에 대한 자신감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0월 9일 블룸버그 서베이에서도 이를 감지할 수 있음. 연말까지 S&P500 전망에 대해 “응답자들의 27%가 박스권 vs 37%가 -5~10%, 8%가 -10% 이상 vs 24%가 +5~10%, 4%가 +10%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증시 방향성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이는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취약한 소비 수요, 기업 실적시즌 불확실성 등 통화정책, 경기, 실적을 놓고서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 10월 발표된 IMF 수정전망에서도 2024년 전세계 성장률 전망치(기준 3.0% → 수정 2.9%)를 하향함과 동시에 2024년 전세계 인플레이션 전망치(5.2% → 5.8%)는 큰 폭 상향했다는 점도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

하지만 당사는 4분기 이후 미국 경기 모멘텀 둔화 및 고금리 장기화 부작용 출현 등을 예상하고 있음. 높은 근원물가를 근거로 인플레이션을 상향조정한 IMF의 전망이 현실화되기 보다는 근원 물가가 지속적인 둔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 더 나아가,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 수위가 덜 매파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듯이 12월 FOMC에서 연준이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등 긴축 의지가 9월 FOMC에 비해 후퇴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감안 시 그간 긴축정책에 종속되어 조정을 겪었던 주식시장의 하단은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

문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불안이 수면 위로 부상하거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자산시장 전반에 걸쳐 확산될 수 있다는 것. 전쟁 발발 이후 주가와 유가 흐름이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현재로서는 다행이긴 하지만, 러-우 사태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했던 것처럼 추후 상황은 쉽게 예단할 수 없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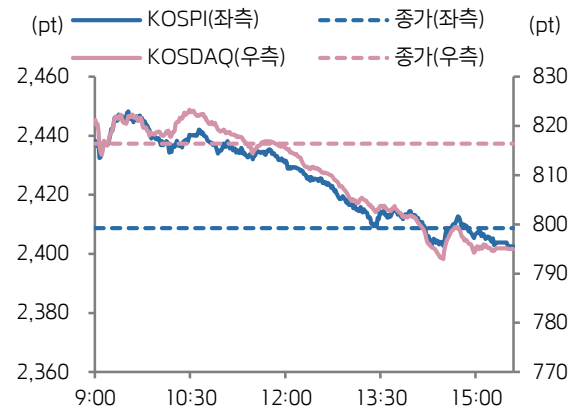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는 이란, 사우디 등 메이저 중동국가, 미국 등 주요 서방국가들의 참전 및 대리전 양상을 띄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확률은 낮아 보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으로 국한된 국지전 형태로 전개되는 것을 베이스로 상정하는 것이 타당. 이번 중동 분쟁의 증시 영향은 제한적이며, 기존대로 CPI 결과, 금리 변화, 3분기 실적시즌을 소화해 나가면서 주가 복원력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전제로 증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1% 넘는 상승하기도 했으나,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심리 속 이차전지, 엔터 등 주요 테마주들의 동반 약세 여파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며 코스닥을 중심으로 급락(코스피 -0.3%, 코스닥 -2.6%).

금일에는 이스라엘 전쟁 경계심리에도, 연준 인사들의 완화적 발언에 따른 미국 금리 하락, 3분기 실적시즌 기대감 등에 힘입어 반등에 나설 전망. 다만, 코스닥은 최근 연이은 주가 변동성 확대에 의해 이차전지 등 주요 테마주들의 신용 반대매매, 포지션 청산 물량 등으로 수급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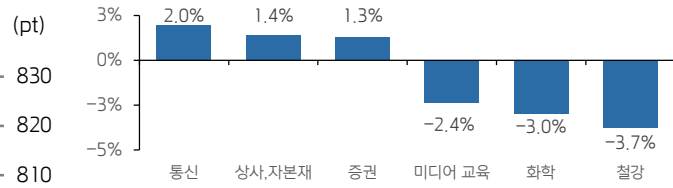
한편, 국내 증시는 2분기 실적시즌을 거치면서 실적 기대치가 낮아지기도 했음. 그러나 전일 LG 전자(+7.0%)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시사하듯이, 낮아진 실적 기대치가 되려 코스피의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이런 관점에서 금일 삼성전자의 잠정실적도 중요할 것. 수출이나 메모리 가격 지표 상으로 살아나고 있는 업황 회복 정도와 반도체주들의 주가 모멘텀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 이에 더해 이번 잠정실적 결과에 따라 반도체 포함 코스피 전반적인 주가와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련 이벤트에도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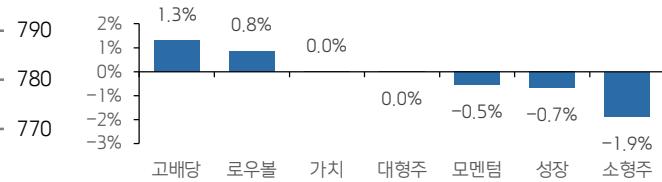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